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지도력

(여호수아 1:10-18)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찌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셨습니다(1:6, 7, 9). 백성들도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1:18).

하나님께서도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백성으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지도자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1. 여호수아는 과거가 신실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27회나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모범적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1) 출애굽기 17:8-16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사막을 지난 후 첫 전투 시 아말렉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남방과 시내산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전략을 잘해서 승전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2) 출애굽기 24:13-32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새겨진 돌 판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돌 판을 내렸고 아론의 금송아지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를 목격했습니다.

(3) 민수기 13:1-33

가나안 땅에 보낸 열 두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다른 열 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모세에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환경과 사실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하나님을 잊고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결정에 따랐고 그 결과 38년간 광야에서 유리해야 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객관적 표준으로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며 불신앙은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4) 민수기 27:18-23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신 31:23)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지혜와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2.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소명감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로부터 받은 소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대수 1장).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38년 전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에게 과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3. 여호수아에게는 객관성 있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객관적 표준으로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은 것은 여호수아의 절대적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따랐고 또 지도자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그의 간증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극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맥추감사절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식 · 찬양예배 시간에 교육1국 특별순서

오늘은 올해 첫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다. 지금은 생소한 말이 되었지만 지난 시절 우리에게 먹거리가 절박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해 풍년을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곡식창고가 넘쳐 이제는 먹을 것이 부족한 북한의 동쪽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은 이 민족의 과거 어느 시절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축복이며 오로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다.

교회는 이 축복을 감사하기 위하여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교회학교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킨다. 교육 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은 찬양예배 시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순서를 갖는다.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바자

7월9일부터 4주간 8층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단기선교팀 후원을 위한 바자가 7월 9일부터 4주간 8층 만나홀 앞 로비에서 열린다.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바자는 자비량 선교를 떠나게 될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선교 여행경비 등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본인이 소장하고 있

던 신앙서적이나 각종 CD 등을 판매하게 된다.

서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자회와, 카자흐스탄으로 전해질 기증품을 사무국에서 접수 받고 있다. 성도님의 소중한 정성을 기다린다.

장년부 연합 특강

7월14일(금) 오후7시 곽선희 목사를 강사로

장년 1~5부가 연합으로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신앙과 헌신'으로 곽선희 목사(소광교회 원로목사)가 강사로 선다. 평생을 목회에 바쳐온 곽선희 목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가 이어질 이번 연합 특강에 모든 장년부원들과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장년부 연합 특강은 7월14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여름철 위생관리 철저

요즘 우리사회는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근심이 되고 있다.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세심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교회 각 부서는 식당이외의 방에서 음식물, 다과류, 음료수(커피) 등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각 방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높은 실내 온도에서 쉽게 부패하고 각종 해충을 불러들여 성도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니만큼 음식물(음료, 다과)은 반드시 8층 식당(만나홀)에서 드시기 바란다.

농어촌 100교회운동

오치교회에서 온 편지

농어촌 100교회 후원을 하시는 서울교회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미자립 교회를 도우심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서울교회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오치교회'와의 결연함으로 이곳 성도들은 복음에 한층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6일 바울 선교회와 이미용 선교봉사를 다녀 가신 후 우리 오치교회에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용 봉사를 하는 중에 교회에서 예배 중에 점보는 집 주인이 교역자를 힘껏 도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두 동리에서 약 50여명의 인원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큰 행사이며(두 동리 화합의 차원) 질서정연하게 헌신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이번 선교활동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일에 일어난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름표를 달고 일일이 한사람이 한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하며 이미용이며 진료며 심지어 그릇을 씻는 곳까지 화장실까지 같이 갈 정도로 헌신 봉사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 마지막에는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결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결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후에 이 보다 더 큰 복음의 결실이 있을 것을 믿으며 이번 서울교회 성도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치교회 드림

6.25 헌시

이 땅을 지킨 용사들을 위하여

남민우

그대들은 검은 군대를 용서하지 않았다.

바람이 흐느낀다.
실낱같은 혼들이 흔들린다.
6월의 조국의 산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선달 그믐날 빨랫줄에 걸려
해소 기침을 토해내고 있다.

고요한 새벽 검은 군대가
이 땅을 짓밟고
화포가 불을 토하고
총구가 불을 뿜어내던 날,
피로 물든 이 산야에 널려 있는
주검들을 어찌 잊으리오

지금도 우리는
서해안에서 남해에서
곳곳에서 싸우고 있다.
검은 가운이 새벽에 겹우어지듯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

장엄했던 그대들의 얼굴
교복 속에 감추어진 옛된 얼굴로
조국을 지키려던 그대들의 의지가,
적의 탱크 앞에서 육탄으로 맞섰던
그 거룩한 희생이
그대들의 주검 위에 핀 들꽃들의
흐느낌으로 전해오고 있다.

동작묘지를 지나면
옆 동네 카페골목에서는
네운사인 불빛아래
남녀들이 역사를 짓밟고 있다.
낮술에 취해 허우적 거리는
젊은 거리에 그대들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고 있다.

홍남부두에서 영도다리까지
늘어선 피난민의 행렬
그 겹겹의 피난민의 눈빛을 보고

봄기운이 찾아와
그대들의 역사를 전하던
산야의 풀꽃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으리라.

6월의 숲 속
두견새 울음소리 하나되어
오뉴월을 삼키듯,
피를 토하며 이 강산을 지켰던
그대들의 절규를 어찌 잊으리오.
산야에는 그대들의 고통을
작은 이슬방울들이 아침마다
눈물로 흐느끼듯
우리의 가슴에 전해주고 있으니
안심하라.

남은 자들은
어둠과 싸우고 있다.
진실을 사는 자들은
그대들의 희생들을 뼈 속 깊이
새기며 기억하고 있다.
어둠과 싸우는 영만이 별이 되듯,
이 산야를 지킨
그대들은 별이 되어
우리 가슴에 비추고 있다.
그대들은 안심하라.
우리들의 가슴에
별이 되어 남아있으니

홍해작전 승전 감사

내가 전년 홍해!

김준영 (청년부)

박선미 (청년부)

조상의 (대학부)

“교회, 백성의 위로자”라는 주제와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20일간의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홍해작전은 29년간 지나온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시간과 좋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일간의 홍해작전을 통해 깨닫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여태까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버거워하며 힘들어 했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회복적인 관점에서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에 대한 보답을 위해 더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관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의 참 뜻을 새기며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힘든 일들을 가볍게 해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우리 청년부,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벽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새벽기도는 제게 큰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늘 차가웠고 나에게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은 이미 졸업을 했고, 취직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몰랐던 아빠는 너무나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새벽기도가서 졸텐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시간도 많은데 왜 꼭 새벽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6년 홍해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3일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부터 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다가 못 일어나면 핑계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꼭 4시에 저를 깨우셨고 나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같이 새벽기도에 가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반 정도 건넌을 때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시간은 아직도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지만 더 이상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작전 동안의 새벽 시간은 월드컵 축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의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홍해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생각하듯 “내가 가를 홍해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품고 홍해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작전에 하루하루 참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그 동안의 내 욕망과, 나의 갈급함 찾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증보하는 기도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선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새벽이슬을 맞으며 홍해작전 기간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 중간에도 힘이 들어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인식했지만, 홍해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이 순간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심을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부족함 없이 풍성히 기도제목들을 채워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셨음과, 모두 응답 해주실 것임을 알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나의 하루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눈물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리고 제가 알고 하나님이 참 줄음을 고백합니다.

성도가정 탐방- 고성진 집사 가정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일 오후 청년예배의 청년찬양대 임마누엘은 청년들 특유의 힘있는 찬양과 순전한 열정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데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이끌고 있는 고성진 지휘자 집사님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있다.

한서대 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고성진 집사님은 한 해의 찬양곡들을 모두 암기하고 연구하며, 매주 청년들에게 기초발성법에서부터 찬양의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알파와 오메가를 가르치신다.

고 집사님은 서울아버지합창단, 서울시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실무위원, 세종문화회관 정책자문위원, 철도지하철 문화예술협회 이사장 등 많은 직책을 맡고 있지만, 가장 사모하는 것은 찬양대를 섬기는 것임을 기쁘게 고백하는 모습은 청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일 오전이면 온 식구가 1시간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로 출발한다는 고성진 집사님 가정은 김호숙 집사님과 장남 광석, 처제 경미, 10년 가까이 사제지간의 정을 쌓아온 엄지원 군까지 온가족이 다함



게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내년이면 차남인 광재도 찬양대에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바리톤을 전공한 고집사님에 이어 장남 광석과 제자 지원도 바리톤 전공으로 베이스를 탄탄하게 받고 있고, 밀라노에서 7년여 수학한 후 귀국한 처제 경미씨는 제주음대와 현대문화센터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재원이다.

지금은 원로목사님으로 재직 중이신 부친의 영향으로 형제들 모두가 음악을 전공하고 특히 형제가 나란히 바리톤을 전공하였는데, 이를 이어 장남 광석이 올해 바리톤을 전공하기 위해 음대에 진학하였다.

광석과 제자 지원군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한 걸 같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이자 선생님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입을 모으는데, 이는 임마누엘에 속한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임마누엘 찬양연습 시간은 12시부터 시작되지만, 고 집사님은 한 시간 전에 도착하여 연습실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다.

2년 전 서울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부임한 후, 경건한 예배와 힘 있는 말씀,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늘 감명을 받으며 예배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고백하신다.

고 집사님은 할아버지대로부터 물려받은 모태 신앙을 서울교회를 통해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다고 한다.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된 삶, 예배드리는 삶, 무엇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되기를 소망하는 고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소정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자비량(自備糧) 선교 준비하며

오주명 (대학부)

친애하는 김형!

올해 여름은 참으로 더운 것 같습니다.

비단 짝 조여 맨 넥타이와, 답답한 기지바지를 입고, 커다랗고 무거운 공구가방을 어깨에 걸쳐 멘 채로, 피약별 속을 뛰어다녀야 한다는 점을 심분 감안 하더라도, 무척이나 덥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덜컥 겁이 납니다. 날씨가 온화하다는 한국도 이렇질때, 40도를 오르내린다는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2주가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동안,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그들에게 대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을런지 말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도움이 될는지, 혹여 얻는 것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김형! 이토록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두근거리는 것은, 참으로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자신감과, 한없는 희망이, 비단 옛적의 복음 전하던 사도들보다 현실과 조건이 나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카작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아직 젊고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은 안질을 겪지 않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벽찬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40도를 넘는 더위를 버텨내라고 지금 피약별 속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시간은 2주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자비량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일겁니다.

김형! 저는 8월 초에 카작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기간은 짧지만 꽤나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동안의 호의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며...

김미경 집사(13교구)

이연주 집사(4교구)

재작년 5월 70전도대원의 인도로 서울교회에 온 우리 네 식구는 저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즐기던 남편이 술을 끊고 두 아이는 교회 생활과 가족예배를 기뻐하며, 무엇보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 생애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양로원 가져갈 음식을 만들면서, 지하철역에서 순례자를 돌리며 전도를 하면서 기쁨에 젖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많은 아픔을 남긴채 우리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일이기도... 이제 저희 가족은 이종윤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가족같은 1부 안내팀, 그리고 아이들의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루디아 여전도회원들 또 애뜻한 다락방식구들, 바로 이 선교사 중보기도팀 이 모든 분들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시시각각 섭리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하심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던 아브라함도 두려움 보다는 기대에 차서 떠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교회로 그래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집사님을 처음 만났던 날은 재작년 루디아 여전도회 총회를 끝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여전도 회장에 뽑히고 어떻게 이 직임을 감당할까 너무도 걱정되어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시며 "교회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도회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무얼 도와드려야 되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주님이 부족한 나를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우시고 집사님 같은 분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의 그 약속은 나를 감동시켰고, 집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이제 집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그간 잘해주지도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그간의 아름다운 봉사와 선행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머물 것입니다. 식당 봉사로 양로원 봉사로 전도대원으로 또 선교사 중보기도팀에서 주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예"라고 말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집사님이 가시는 그 곳에 이미 집사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예비하셨을 듯 합니다.

두 자녀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반석에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동정

- **독남:** 김두일집사, 이명주 성도 가정(김대호장로, 남순덕권사 손자)
- **주간식당 봉사:** 마리아 전도회(7월2일) 에스더전도회(7월9일)
- **금주의 식사 제공:** 안평 성도, 김경아 집사, 안태완, 안윤경 (어머니 심재를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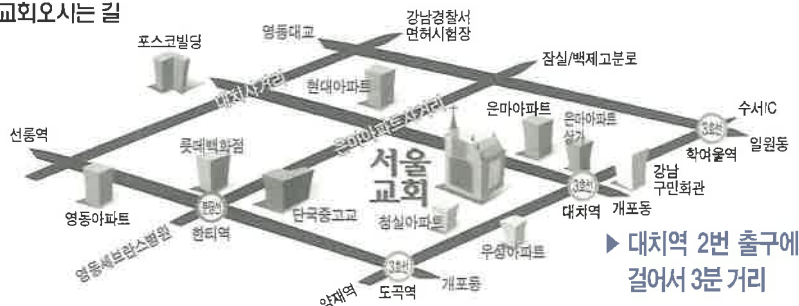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맥추감사절에 감사가 계속되도록
2. 서울교회-이웃의 등대·민족의 구원선·세상의 나침반 사명 감당하도록
3. 피백 집사·권사들 은혜 중 교육과정 잘 마치도록
4.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5.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